

이영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고효율 에너지설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민생회복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애로 청취
조주현 차관 화재난 현대시장 방문
“생업복귀토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영 중기부장관(왼쪽 2번째)이 7일 서울 마포 흥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템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주무부처로서 현장 애로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까지 전방위로 나서면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흥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템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이 장관 외에 최근 취임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희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속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전국소공인협회 김영홍 회장, 한국농식품진흥협회 손무호 정책개발국장, 한국수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 백년가계협동조합연합회 이근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서비스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

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올해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현장애로,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방화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을 일요일인 지난 5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차관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사고가 발생한 시장에는 폐기물 처리, 긴급 방역 등 긴급 복구비를, 개별 점포에는 용자 형태로 최대 7000만원(연 2%, 2년 거치

2년 상환)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최대 2억원(보증료 연 0.5%)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시장은 지난 4일 밤 발생한 화재로 55개 점포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모범음식점이 음식 가격을 5% 이상 올릴 경우 용자받았던 식품진흥기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용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에 삭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내 몸에 맞는 침대 찾고 체험 서비스 받아요” 세아그룹,故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

에이스침대

이동수면공학연구소 3년만에 재개
2004년부터 18만 명의 데이터 수집



에이스침대가 서울 광진에 있는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을 시작으로 3년만에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서비스를 재개한다.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찾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찾아가는 침대과학 서비스 ‘이동수면공학연구소(ACE BED Mobile Sleeping R&D Institute)’를 3년만에 다시 운영한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을 시작으로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서비스가 중단된 뒤 약 3년 만이다.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에서 진행한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운영 현장에는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침대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첨단 장비를 통해 내 몸에 맞는 침대를 알아보고 실제 매트리스

스에 누워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동수면공학연구소는 척추형상 측정기, 체압분포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고객 곁으로 직접 찾아가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최적화된 침대를 선정해 주는 서비스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동수면공학연구소의 침대 선정 시스템은 1단계 성별, 나이, 신장, 체중, 수면습관 등 기본 고객 정보 입력, 2단계 체압분포 측정, 3단계 척추형상 측정, 4단계 최적 침대 선정, 5단계 선정된 매트리스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10일 서교동 세아타워서 사진전
15일엔 예술의전당 갈라 콘서트



故이운형 회장이 2011년 오페라 공연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세아그룹은 ‘철강업계 신사’로 불렸던 고(故)이운형 선대회장 영면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따뜻한 모습을 추억하고 생전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10주기 당일인 오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아타워에서 유가족과 세아그룹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면 10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또 약 한 달간 세아타워 기업 역사관 ‘세아관’에서 “죽는 날까지 철강업을 하고 싶다”던 생전 바람대로 철강업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한 성품을 조명한 ‘心如鐵(심여철)-철과 같은 마음으로’ 추모사진전을 개최한다.

15일 오후 7시 30분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및 후원회장을 13년간 맡아 오페라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뜻을 기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10

주기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이 회장은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약 40년간 세아그룹을 이끌며 국내 강관업계 최초 1억달러 수출 달성, 지주회사체제 선제적 도입,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창원강업(現 세아특수강) 인수 등을 통해 매출을 약 300배 가까이 성장시키는 등 국내 강관·특수강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1년 금탑산업훈장, 2003년 메세나대상 창의상·한국윤리경영대상, 2009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2012년 언스트앤영 철강산업부문 최고 기업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옴디아, 작년 반도체 불황에도 최대실적… 3분기부터 추락

자동차 반도체 전년 대비 21% 증가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총 수익 5957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5928억달러)보다도 성장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했다. 이미 전년에 두자

릿수로 성장했던 유선 통신과 가전 반도체 등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 침체도 깊었다. 4분기 기준 수익은 1324억달러로 전년 동기(1611억달러)와 비교해 82%에 불과했다. 메모리만 보면 3분기 241억달러로 전년 동기(465억달러)보다도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데이터 처리 부문 수익은 PC 및 기타 애플리

케이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

옴디아는 코로나19 종식으로 IT 수요가 축소하는데 더해 제조업체 높은 투자로 인한 과잉 재고, 거시 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요 둔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1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iuk@

하늘길 열린 중… 플라이강원 4개 노선 취득

베이징·장춘·웨이하이·하이커우

플라이강원이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으로부터 베이징, 장춘, 웨이하이, 하이커우 4개 노선에 대한 경영허가를 7일 취득했다.

2020년에 배운 받은 ▲베이징 ▲장춘, 2022년에 받은 ▲상하이 ▲청두 이

렇게 4개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이번에 ‘베이징’, ‘장춘’과 항공자유화 지역이라 운수권이 필요 없는 산둥성 최대항구도시인 ‘웨이하이’와 하이난성 성도인 ‘하이커우’를 묶어 4개 노선에 취항을 위한 첫 단계인 경영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하정윤 기자 zelkova@